

#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이재두\*

## 차례

1. 머리말
2. 편찬 배경
3. 편찬 과정
4. 편찬 목적
5. 맺음말

### 【국문초록】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苞山志』(古2758-1)는 조선 중기 현풍현의 읍지이다. 이 읍지는 표지까지 합쳐 69장 137면의 필사본이며 모두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표지에 찍힌 붉은 색 印記는 1741년부터 1745년까지 현풍현감이었던 朴致文 소장본이었음을 보여준다.

『동명집』과 현풍면에 남아 있는 김세렴 인정비에는 金世濂이 『포산지』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포산지』에 실린 기록의 하한인 풍영대 제명 석각이 1634년 5월 16일이고, 제영 뒤의 遺事들은 원문을 많게는 2/7까지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김세렴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포산지』는 현

---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풍현감 김세렴이 중심이 되어 1634년 시작하여 1635년경에 편찬하였음이 분명하다. 자료의 수집과 편찬 과정에서는 풍영대에 함께 이름을 새겼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인조반정과 복인의 몰락이라는 정국의 위협 속에서, 과거 현풍 지역 인물들이 조식과의 학문적 연원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김세렴과 현풍 사족들은 현양할 인물과 지리 정보들을 김굉필, 이황, 정구로 연결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산지』 곳곳에는 현풍 사회를 주도해온 복인계의 흔적이 보인다. 조식의 제자이며, 박성·곽준의 스승인 裴紳을 높이려는 지역 사회의 노력은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율은 조식의 제자로 배신·김부륜·김우옹과 서로 학문과 덕을 닦았으며 박성·곽준과 공유하였다.

정구 신도비와 박성 행장에서는 정구와 박성이 정인홍과 관계를 단절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곽준 신도비에는 증조부인 곽승화가 김굉필과 더불어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유한 사실은 나오나, 스승인 배신이나 조식에 대한 기록은 없다.

곽율, 박성, 곽준,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며, 특히 곽준은 황석산성의 영웅으로 국가로부터 포상 받은 인물이다. 곽재우전은 한 면이 떨어져 나갔지만 배대유가 지은 것이다. 배대유는 조식의 再傳弟子로 광해군 때 폐모론을 주도하였다. 곽재우전 뒤에 협주로 곽재우가 영창대군을 주살하려는데 반대하여 올린 상소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역모 사건이 빈번했던 인조 정권 아래서 비판 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요컨대 『포산지』는 복인계 남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김세렴과 현풍 지역의 사족들이 중앙 정계의 주요 남인 세력들과 연결하여 지역 인물을 현양을 하고, 이를 통해 역모에 희생되지 않기 위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 주제어

『苞山志』, 玄風縣, 金世濂, 北人系 南人, 裴紳, 鄭述, 郭再祐.

## 1. 머리말

조선은 건국 이래 국가 경영의 기초가 되는 지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상도지리지』(1425), 『세종실록지리지』(1432),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는 전국 지리지의 편찬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결국 『동국여지승람』(148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편찬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인물·고적·능묘·불우 등 문화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시문이 첨가되어 있어 당시 지배층의 국가의식 내지는 역사의식이 널리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읍지』들의 기본 형식이 되었으며, 각 지방의 『읍지』들은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을 그대로 실은 뒤 다른 정보들을 추가하였다.<sup>1)</sup>

전국지리지의 편찬 과정에서 지방에서는 지리지 편찬 경험이 축적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행은 민간 차원에서 다른 지방 군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지방 단위의 지리지인 읍지 편찬이 가능해졌으며, 17세기에는 읍지 편찬이 보다 활발해져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16·17세기의 읍지 편찬은 지방 사족과 수령의 협조 속에서 가능하였다.<sup>2)</sup>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포산지’를 검색하면, 비치일이 2009년 11월 21일이며, 상세정보에는 ‘표제사항 : 苞山志, 판사항 : 寫本, 발행사항 : 刊寫地 未詳, 刊寫者 未詳, 刊寫年 未詳, 형태사항 : 67張, 四周單邊, 半廓

1)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24, 2015, 14~15쪽.

2) 양보경, 「조선 중기 사찬읍지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43~44쪽 참고.

22.7×16.7cm, 10行41字, 注雙行, 無魚尾 ; 32.7×21.4cm'라 되어 있어 간단한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원문)보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다.<sup>3)</sup> 『포산지』는 표지까지 합쳐 69장 137면으로 학규, 향약, 제영 및 遺事<sup>4)</sup>가 전체 분량의 대부분으로 108면에 이른다.

포산은 현풍의 별호로, 『苞山志』는 조선 중기 현풍현 지역의 지방 읍지이다.<sup>5)</sup> 조선 시대 현풍현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부 지역으로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논공읍 상·하·남·북·본리리,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의 부·생·옥산·인안리, 우곡면의 객기·답곡·봉산·예곡·포리에 해당한다. 현풍현은 1895년 9월 창녕에 합쳐졌다가 1896년 6월 현풍군이 되었다.<sup>6)</sup> 1906년 낙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현풍군 진촌면·답곡면·왕지면은 고령군에 편입된 반면에, 성주목 노장면은 현풍군에 편입되었다.<sup>7)</sup> 일제 강점 초기인 1914년에는 대구군과 통합하여 신설된 달성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두어 개의 면이 통합되면서 현풍면·유가면·구지면·논공면이 되었다.<sup>8)</sup>

3) 『포산지』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758-1.

4) 遺事는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물에서 '遺事在後'라는 표현을 써 인물을 보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양보경은 16~17세기 읍지의 분포를 정리하면서 『포산지』(현풍)는 정구의 『昌山志』(창녕), 허목의 『咸安志提要』와 함께 이름만 전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18-1, 1983, 58쪽 ; 양보경, 앞의 논문, 53쪽.

6) 『현풍군읍지』(1899) 건치연혁.

7) 대한제국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 건(1906년 9월 24일) ; 王旨, 畚谷, 津村은 縣西 越江 지역이다. 『포산지』 掌面 참고.

8)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위치·관할구역변경및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의거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포산지』 실물을 보면, 책 끈을 풀고 이면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묶은 것이 분명하다. 『포산지』 본문 뒷면에는 『격몽요결』과 『동몽선습』이 필사되어 있다. ‘인용서목’이 적힌 종이의 뒷면에는 ‘擊蒙要訣, 孝經大義, 辛未元月初十日 膾書’ 등의 글씨가 어지럽게 씌어 있다.<sup>9)</sup>

『포산지』 본문이 시작되기 전 별면에는 37종의 ‘인용서목’이 열거되어 있다. 『회재집』, 『퇴계집』, 『한강집』, 『우암집』, 『동춘집』을 비롯하여, 1854년(철종 5)에 제작된 50권 25책인 『도암집』 등이 들어 있어 『포산지』의 편찬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인용서목’은 책이 풀어져 낱장으로 있던 상태에서 다시 책으로 묶을 때 책표지와 본문 사이에 들어간 『포산지』와는 관계없는 間紙이다. 『포산지』 수록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이들 서목이 『포산지』를 엮을 때 이용되지는 않았다.

본문 항목 중에서도 ‘貢物大同前’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포산지』의 편찬 시기가 대동법이 경상도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1678년(숙종 4) 이후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에 대동법 실시와 관계없이 수령들이 자율적으로 私大同을 실시하면서 유행된 점을 고려하면, 대동전은 사대동이 실시되기 이전의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9) 이러한 사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PDF를 통해서 알 수 없다.

10) 처음부터 貢物大同前이라고 썼으며, 貢物이라 적고 뒷날 大同前을 추가하여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래 경상도는 1678년(숙종 4)이 되어서야 실시되었다. 그러나 三道大同法 논의는 1623년 인조 즉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 법을 제안했던 李元翼이 법의 폐지를 요청한 1625년(인조 3) 2월 7일 종결된 사안이었다(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63쪽 참고). ; 당시 고령현에 살았던 許命申(1569~1637)의 『癡齋日錄』에는 私大同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온다. “7월에 종마가 25바리, 태수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16바리, 8월에 종마가 27바리, 즉 세 차례가 총 68바리가 들

한편, 현풍면 달성군민체육관 옆 정원에 세워져 있는 金候仁政<sup>11)</sup>와 『동명집』 부록의 ‘현풍현 거사비문’에는 모두 ‘述苞山誌’라 하여 金世濂(1593~1646)이 『포산지』를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비문에 의하면, 김세렴은 집의로 구설수에 연루되어 1632년(인조 10) 현풍현감으로 좌천되었으며,<sup>12)</sup> 1635년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는 현풍에서 향약을 일으켜 백성들의 덕이 두터워지게 하였으며, 학규를 두어 선비들이 따라 바르게 하였다. 경연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요청하여 현풍향약을 전국에 반포하게 하였다. 존재 광준의 신도비를 세워 충효를 표창하고 『포산지』를 만들어 인물을 드러내었다.<sup>13)</sup>

그럼, 국립중앙도서관 『포산지』는 언제 누구에 의해 편찬된 책인가?

었는데 한 바리당 무명 9필과 쌀 1석이므로 총 합 무명 12동 22필과 쌀 68석이 들었다.” 大同所에 납부했던 재물을 1달 내에 다 썼다. 『치재일록』 1631년 8월 9일.

- 11) 달성군 정책사업단, 『달성의 금석문』, 달성군, 2013, 96~97쪽에는 비석 사진을 ‘수철원교 비명’으로 잘못 신고 있지만, ‘김세렴 인정비’라 하여 한자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을 신고 있다. 이 비석의 비문 중에는 ‘立存齋碑 旌忠孝○○山誌 表人物也’가 보이는데, ‘也 述苞’가 떨어져 나갔다. 이 비석은 1636년 정월에 세워진 것이다.
- 12) 이조판서를 자칭한 이귀를 사간원 간원으로 있으면서 탄핵하다가 현풍현감으로 貶出되었다. 『인조실록』 9년(1631) 윤11월 23일(임술).
- 13) 崇禎五年之壬申 公以執義 坐言事來守是邦 乙亥以病辭歸 公姓金名世濂 字道源 東溟其號也 公德器濼粹 操履又確 不以命屈爲介懷 唯以盡職爲己任 自下車以來 存心化俗 銳意導民 興鄉約民德以厚 置學規士趨以正 筵臣上聞 命頒中外 其所及者不亦廣乎 立存齋碑 旌忠孝也 述苞山誌 表人物也 臨民則寬嚴竝濟 莅事則恭清備到 政平物和 訟理而囿空 噫 侯所以致此者 豈其無所本歟 晨興盥櫛 默對經傳 大書敬義字帖諸壁 以爲古人存心出治之要 都在於是 凡有處物 必有得於此而後行之 侯之政 宜其美矣乎 至於愛人好士 褒善糾違 賦斂就省 農桑樂業 來則衣食吾民 去則囊橐枵然 皆未足爲論侯之地矣 於是父老曰 古稱良吏固多 各以一善名 豈若侯以學爲政 身兼衆美哉 銘曰 學古之道行古政 民安俗美德無競 亦及四方厥施普 爰刻斯石以永慕 皇明崇禎九年丙子正月日. 『동명집』 부록 玄風縣去思碑文.

이것은 『포산지』 본문에서 연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통해 가능하다.

『포산지』에는 임진왜란 뒤 관아와 향교를 복구한 내용이 실려 있다. 객사는 이황의 손자인 현감 이영도가 1602년 세운 것을 1633년에 단청하였다. 동헌의 옛 연못은 좁아 1632년 가을 철거하였다.<sup>14)</sup> 향교 명륜당 안팎의 제액과 대성전 판각은 1633년 여름에 새겼다.<sup>15)</sup> 충묘에서는 곽준의 신도비가 1634년에 세워졌음을 밝히고 있다.<sup>16)</sup>

인물 정구 항목에서는 ‘今上朝贈判書 諡文穆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상은 인조이다.<sup>17)</sup> 제영 뒤에 실린 遺事 중에서 ‘제 낙천행록 하’와 박성행장은 1632년 장현광이 쓴 글이다. 특히 정구 신도비는 1633년, 곽준 신도비는 1634년 5월에 세워졌는데, 두 신도비의 글씨는 모두 김세렴이 썼다. 김세렴은 1632년부터 1635년까지 현풍현감이었다.<sup>18)</sup>

고적에는 풍영대가 실려 있다.<sup>19)</sup> 김세렴은 현풍현에 부임하여, 이곳에서 노닐며 경치를 즐긴 뒤에 풍영대라는 세 글자 및 한 시대에 교유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자를 바위에 새겼다.<sup>20)</sup> 관아와 향교를 수리한 내용의

14) 客舍 萬曆壬寅間 縣監李詠道 所創 崇禎癸酉 施加丹雘 (중략) 東軒舊湫隘 壬申秋 撤去.

15) 鄉校 輿地勝覽云 在縣北一 今在北四里 移建年月 不可考 壬辰兵燹 縣監 李詠道 建廟 奉安 癸丑 縣監 許佶 重修 聖廟及明倫堂 東西齋 越明年 奉安 以國朝五賢從祀 明倫堂 題額 懸于內者 退溪先生筆 懸于外者 石峯 韓護筆 大聖殿 板刻 石峯筆 癸酉夏 崑摸刊.

16) 郭越墓 縣西 山田里 孤山 神道碑 在墓 東五里 旌閭之左 崇禎七年 甲戌立碑.

17) 정구는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625년 文穆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8) 金世濂 壬申到任 治效克著 儒化大興 乙亥病遁 有去思碑. 『玄風縣邑誌』(1786) 宦蹟.

19) 風詠臺 雙溪東麓 去照寒亭 數百步 斲巖 開徑列石 成壇前臨節澗 後有蒼松數百本 人迹罕到 水石清絕 刻風詠臺三字.

20) 風詠臺 在縣東五里 斲巖城壇 水石清奇 金世濂 補本縣 遊賞之餘 刻石 風詠臺 三字 及一代交遊人名字. 『여지도서』.

마지막이 1633년이고, 광준 신도비가 1634년(인조 12) 5월에 세워졌으며,<sup>21)</sup> 風詠臺 題名 石刻은 1634년 5월 16일의 일이다. 따라서 『포산지』는 김세렴이 현풍현감으로 부임한 뒤 먼저 학규와 향약을 통해 교육과 향촌 교화에 힘쓰고, 관아와 향교를 정비하면서 1634년 시작하여 1635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포산지』에 찍혀 있는 ‘漢城禮信文庫, 密陽, 朴致文印, 士彬’의 붉은 색 印記는 이 책을 소장하였던 인물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다. 박치문은 1694년생으로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사빈으로 청주 출신이다. 1723년(경종 3) 식년시에 합격하였으며,<sup>22)</sup> 1741년(영조 17) 현풍현감으로 도임하여 1745년(영조 21) 장령으로 승진하여 조정으로 불려갔다.<sup>23)</sup> 그는 현풍현감으로 있으면서 『苞山郭氏族譜』 癸亥譜(1743)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sup>24)</sup>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포산지』는 현풍현감을 역임한 박치문 소장본으로, 18세기 중엽까지 현풍 지역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필체가 다른 몇 명이 서로 분담하여 정서하였다.<sup>25)</sup> 이 읍지가 김세렴 당시의 책인지, 후대에 베낀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세렴이 현풍현감으로 있던 시기에 편찬한 읍지와 동일한 것임은 분명하다.

21) 碑銘 뒤에는 ‘崇禎 七年五月日’이라 되어 있다. 광준신도비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 시스템.

22) 癸卯式年文武科榜目 참고.

23) 朴致文 辛丑到任 乙丑以掌令承召. 현풍현읍지(1786) 宦蹟.

24) ‘七世祖 江叟先生(朴薰, 1484~1540) 有賢子婦 曰玄風郭氏 參奉諱藩之女也’, ‘將刊世譜 以余爲外裔也 不可無一言 余以不文辭 諸郭氏 強之不已遂 以荒拙數行文 謹題弁卷’ 『苞山郭氏族譜』(1743) 序.

25) 『포산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현풍현읍지』(1841) 끝에 보면 정기락, 김광일, 박한복, 김영유, 권구상, 김재목이 書寫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 2. 편찬 배경

김세렴은 1593년(선조 26, 계사)에 태어났으며, 부는 김극건, 조부는 김효원이며, 외조부는 허봉이고, 처부는 유희발과 유성민이다. 김효원은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동서분당의 계기가 된 이조전랑직도 조식 문하의 최연장자인 오건이 추천하였다. 복인의 핵심인물이었던 허균은 김효원의 사위였으며, 허봉은 허균의 형이다. 김세렴은 광해군대 정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계와 통혼권을 고려하면 복인계이다.<sup>26)</sup>

김세렴은 24세 되던 1616년(광해군 8) 병진 증광시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같이 급제한 이들은 41명이었다. 그의 첫 부인은 광해군의 처조카로 소생 자녀는 없었다.<sup>27)</sup> 둘째 부인은 1602년생으로 3남 2녀를 두었으며, 유형원에게는 고모가 된다. 1645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장남 김익상이 16세의 나이로 죽은 사실을 고려하면, 재혼 시기는 1623년 인조반정 이후가 아닌가 한다.

김세렴은 경기남인 중에서도 복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이다. 그는 동인의 핵심 가문에서 성장하여 이들의 정치적 학문적 분위기를 충분히 접하였고, 그들에게서 정치적 수혜를 크게 받았다. 인조대 서인 주도의 정국하에서 경기남인 세력과 영남의 남인 세력을 매개하며 그 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서인 정권하에서 복인계 인물들이 남인으로 결집할 수 있게 되는 데 그의 역할

26) 신병주, 「17세기 전반 복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992, 139쪽.

27) 유자신신도비(1917)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 문화유씨 족보(己巳)에는 女金世謙 前室無後 文判書로 나온다. 한국족보자료시스템(<http://jokbo.skku.edu/>)

이 적지 않았다.<sup>28)</sup>

병조 판서까지 올랐던 김세렴은 평생 다섯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다.<sup>29)</sup>

25세 때인 1617년(광해군 9) 겨울, 정언으로 廢母論을 주장하던 자들을 탄핵하다가 곽산으로 유배갔다.<sup>30)</sup>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한 지 겨우 1년을 넘어서는 시점이었다.

1623년(인조 1) 31세 되던 해 인조반정으로 처삼촌 광해군이 반정으로 쫓겨나고 장인 유희발이 주살되었다.<sup>31)</sup> 다행히 그는 폐모론에 반대하여 곽산으로 유배 갔다가 1년 뒤에 강릉으로 이배되고 또 1년이 지나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5년 동안 향리에 물러나 지낸 덕분에 살아남았다. 수찬, 헌납, 교리가 되었으며, 부친상을 당하여 물러났다가 喪期를 마친 후 관직에 다시 나가 독서당에서 賜暇讀書하기도 하였다.

정묘호란 때 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이 되어 전주로 세자를 배행하였으나, 조모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 대신 복을 입었다. 1629년(인조 7) 상복을 벗은 뒤에도 淸職에 의망되지 못했는데 이원익이 내준 역마를 타고 전주에서 강릉까지 간 것과 방 안에서 조문을 받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28) 정호훈, 『17세기 전반 경기남인의 세계관과 정치론』, 동방학지 111, 2001, 197쪽, 205~207쪽.

29) 이하는 허목, 戶曹判書金公神道碑銘, 『기언 별집』 16 참고.

30) 121권, 광해 9년 11월 23일(갑신) ; 유학 崔晟은 상소에서 “중대한 논의가 벌어지려 하던 참에 정언 김세렴은 감히 역적을 옹호할 마음을 먹고 밤을 세워가며 초고를 써서 한 통의 글로 삼사의 관원을 쓸어버리려고 새벽에 대궐로 달려가다가 길에서 탄핵을 받고 물러갔으니, 이것은 선비들을 일망타진하고 중대한 논의를 극력 막아 역적을 옹호하는 기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에 청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광해군일기』 9년(1617) 11월 28일(기축).

31) 『인조실록』 1년(1623) 4월 4일(계해).

되었다. 김류와 정경세가 해명하여 벗어났으며, 문제를 일으킨 나만갑은 중도 부처하였고, 김육은 금부에 내린 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를 모함하였다며 문외 출송시켰다. 김세렴은 1630년 4월에야 헌납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sup>32)</sup>

1631년(인조 9) 11월 사건으로 이조 판서에 자천한 인조반정의 元勳인 이귀가 방자함을 저질렀다고 왕에게 아뢰었다가 왕의 뜻에 거슬려 중3품 내직인 사헌부 집의에서 중6품 외직인 현풍 현감으로 좌천되었다.<sup>33)</sup> 당시 김상헌은 도승지로 김세렴 등 3인을 한꺼번에 외직에 임명하려 한 것에 대해 인조에게 연로의 소통과 막힘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sup>34)</sup>

현풍현감은 문관이나 음관이 오는 자리였다. 두 차례의 위기를 경험한 김세렴은 또다시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을 공격하여 쫓겨나게 되었다. 그에게 현풍현감이라는 지방 수령 자리는 관료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김상헌은 김세렴이 좌천되어 현풍으로 내려가는 것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sup>35)</sup>

32) 『인조실록』 7년(1629) 7월 11일(갑오), 12일(을미), 14일(정유), 『인조실록』 8년 4월 24일(계유).

33) 이귀를 탄핵한 김세렴이 현풍현감으로 폄출된 사건은 도승지 김상헌, 소대에서 시독관 윤구, 검토관 구봉서는 물론 이귀마저도 작은 허물 때문에 이름 있는 사대부가 파직되어 外任에 보직된 자가 매우 많으니, 참으로 아주 미안한 문제로 보았으나, 인조는 명을 거두지 않았다. 『인조실록』 9년 윤11월 23일(임술), 26일(을축), 12월 4일(임신).

34) 『인조실록』 9년(1631) 윤11월 23일(임술).

35) 送金中丞世濂左降玄風, 『淸陰集』 3, 정선용 번역.

함께 경연 자리 나가 임금 옥음 들을 적에	同赴經筵聽玉音
틀림없이 성인의 마음 열어 보여 주었다네	丁寧開視聖人心
말 한마디 올렸다가 남쪽으로 쫓겨 가니	一言放逐南荒去
가을 더위 못 믿을 것 예나 지금 그대로네	秋熱難憑古到今

1632년 김세렴은 현풍현감으로 부임하여<sup>36)</sup> 9월에는 학규를, 12월에는 향약을 제정하였다. 『포산지』에는 이때 작성한 학규와 향약이 실려 있으며, 1633년 8월 장현광의 제포산규약후와 7월 예조참의 이준의 題를 신고 있다. 이처럼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영남 출신의 장현광(1554~1637), 이준(1560~1635), 정경세(1563~1633)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sup>37)</sup>

그러나 1635년(인조 13) 봄 능양군은 믿을 수 없고 오래 못 간다고 한 첩보를 전라 감사 원두표가 치계하여, 李基安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sup>38)</sup> 1635년 3월 4일 추국에, 죄

36) 실제로 부임한 것은 1632년이다. 『현풍현읍지』(1786) 宦蹟 ; 전임자인 이필성은 1630년 1월 28일 제수되었으며, 1631년 윤 11월 3일 방백이 啓를 올려 파직시키고 창고를 봉하였으며, 6일 떠났다. 『치제일록』.

37) 김세렴은 정경세가 죽자 제문을 남겼으며, 정경세가 지은 광준 신도비의 글씨를 썼다.

38) 이기안의 공초에 김세연·김세렴·이민환·정운·최현·이준이 나왔는데, 정운·최현·이준은 애당초 잡혀가지 않았으며, 김세렴은 잡혀 갔다가 곧장 석방되었다. 이기안만 처형되었고, 김세연은 戊辰逆獄(1628, 柳孝立 등의 仁城君 珙 추대 기도 사건)에 동참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인조실록』 13년(1635) 2월 24일(을사) ; 『치제일록』에는 김세렴이 역적들의 供辭에 연루된 것인지 자세하지는 않으나 붙잡혀갔다가 풀려나 조만간 관아로 돌아온다는 기록이 나온다. 聞玄倅金世廉拿去 未詳其逆口辭連 (중략) 金倅世廉放還本職 近將還官云. 『치제일록』, 유교넷 ; 김우철 역주, 을해년 역적 이기안 등 추안, 『추안 급 국안』 14, 흐름, 2014, 127~191쪽.

인 金世淵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기안의 입에서 김세렴이 상사를 당해 강릉에 있을 때에 영남 사람과 더불어 왜적을 빙자하여 군사를 일으킨 다음, 통영의 배를 빼앗아 제주로 가서 仁城君의 둘째 아들을 추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세연에게 전해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기안은 정온·최현·이준의 이름도 언급하였으나, 인조는 이들을 추문하지 말도록 명했다. 김세렴은 3월 11일 추국에 붙잡혀갔으며, 21일 元情을 내고 22일 다른 연루자들과 함께 풀려났다.<sup>39)</sup> 김세연은 김세렴의 6촌 동생이다.<sup>40)</sup> 김세렴은 이해 10월 병으로 현풍현감을 그만 두었다.<sup>41)</sup>

李植은 김세렴이 무함을 받아 獄事에 걸려들었다가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東湖의 배 위에서 2수의 시를 지어 작별하였다. 당시 이식은 나만갑의 상소로 부제학에서 체차되었으나 두 달 뒤 다시 부제학이 되었다.<sup>42)</sup> 그 중에 한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43)</sup>

한가로이 펼쳐진 산과 강물 위에	廓落山川濶
세월만 하염없이 흐르네 그려	蹉跎歲月遷
추양은 이제 막 옥에서 풀려 나왔는데	鄒陽初出獄
팽택은 귀거래사 아직도 못 읊누나	彭澤未歸田
초라하고 영성한 물가의 이 술자리	草草臨汀酒
산골 올라가는 배 미련 남아 더디도다	遲遲上峽船
굳이 두우간을 쳐다보지 말지어다	無煩望牛斗

39) 이상은 『응천일록』 1635년 3월 4일, 11일, 21일, 22일.

40)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고.

41) 十三年 乙亥 春 有上變者 獄辭連累 及公被逮 既而釋還任 十月以病辭歸. 『동명집』 부록 행정[許穆]

42) 『인조실록』 13년 3월 24일(갑술), 5월 21일(경오).

43) 玄風宰 金道源 被誣逮獄 蒙恩還縣 東湖舟上贈別 二首 『澤堂集』 6 이상현 번역.

남쪽 하늘에도 우로 흙뻑 내리리니 雨露普南天

북인계 남인인 김세렴은 1626년(인조 4) 경연에서 이황이 저술한 天命圖를 병풍으로 만들어 한가할 때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sup>44)</sup> 1629년(인조 7) 나만갑의 문제제기로 김세렴의 관직 진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정경세는 같은 색목이어서 김세렴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5)</sup> 1634년(인조 12) 안동의 진사 권상원이 도체찰사부종사관 박황, 永川 수령 심지원, 현풍 수령 김세렴, 합천 수령 송석윤, 경산 수령 박창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송석윤을 가리켜 가짜 남인이라 모욕한 것을 보아도, 김세렴은 확실히 남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동명집』에는 모두 12편의 비지갈명과 묘표가 있다. 이 중 네 개가 현풍인으로 곽월, 곽준, 박성, 김굉필이며, 성산현(철곡 상지)의 이윤우, 풍기군의 안향, 예안현의 이준 등의 묘지명도 있다.<sup>47)</sup> 이준은 이황의 아들이며, 현풍현감을 역임한 이영도의 아버지이다. 또한 1634년(인조 12)

44) 『인조실록』 4년(1626) 9월 29일(무술).

45) 『인조실록』 7년(1629) 7월 11일(갑오).

46) 遠也爲朴潢遼 乘駟由監營 造伽倻海印寺 朴及永川守沈之源 玄風守金世濂 陝川守宋錫胤 慶山守朴昌皆會 遠也使氣謂宋爲僞南 宋大怒. 김명, 『계암일록』 1634년(인조 12) 3월 28일.

47) 碑誌碣銘 高麗門下侍中致仕贈諡文成公晦軒安先生神道碑銘(안향), 副提學贈參判自菴金先生神道碑銘(김구), 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贈禮曹判書郭公神道碑銘(곽월), 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贈議政府右議政吳公神道碑銘(오단), 通政大夫工曹參議知製敎李公墓誌銘(이윤우), 貞夫人鄭氏墓誌銘(윤의립 처), 軍器寺僉正李公墓誌銘(이황 윤자 이준), 吏曹判書許公墓碣銘(허성), 存齋郭先生墓碣銘(곽준), 大菴朴先生墓碣銘(박성); 墓表 寒暄堂金先生墓表(김굉필), 書亡子翊相墓表(김익상). 『동명집』 8.

김종직의 신도비를 새로 세울 때는 김세렴이 篆字를 쓰고 장현광이 後誌를 썼다. 김세렴은 현풍현감을 지낸 인연으로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구 문인 및 퇴계학맥의 본거지인 경상도 북부의 안동권 인물들과 연결되었다.

### 3. 편찬 과정

16·17세기 읍지는 충청도의 공주·홍주·충주, 경상도의 경주·상주·안동·진주·동래·성주·선산·밀양 등 품계가 높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편찬되었다.<sup>48)</sup> 특히 정구는 지역 사족의 협력을 받아 자신이 부임한 지역의 읍지 편찬을 주도하였다.<sup>49)</sup> 함안군 읍지인 『咸州志』(1587)는 정구가 주관하여, 박여선·박제인·이정·오운이 편찬하였으며, 정구의 서와 발문이 있다.<sup>50)</sup> 안동부 읍지인 『永嘉誌』(1608)의 서문에는 1602년 유성룡의 권유로 權紀(1546~1624)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는데, 안동부사 정구가 부임하면서 10인의 편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를 완성시키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sup>51)</sup> 현풍현은 품계가 낮은 지방 행정 구역이었지만,

48) 大邑 지역은 직위가 높은 수령이 파견되었으며, 문화 수용의 1차 거점지로, 지방이 넓고 인구가 많아 사족의 거주가 풍부하였던 지방 중심지에서 일차적으로 읍지 편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꽃피웠던 것으로 보았다. 양보경, 앞의 논문, 1998, 55쪽.

49) 昌山志(창녕, 1581), 同福志(동북, 1584), 咸州誌(함안, 1587), 通川志(통천, 1592), 臨瀛誌(강릉, 1593), 關東志(강릉, 1595), 楊普景, 앞의 논문, 1998, 51~54쪽.

50) 김순희, 「吳滙과 『咸州志』」, 2004, 서지학연구 29, 488쪽 ; 한보람, 咸州誌 해제, 규장각 지리지 정보시스템.

현풍인을 자처하였던 정구의 영향이 강하였을 것이다.<sup>52)</sup>

상주목 읍지인 『商山誌』(1617)는 李堧이 중심이 되었으며, 발문이 있다.<sup>53)</sup> 예안현 읍지인 『宣城誌』(1619)는 權是中이,<sup>54)</sup> 서산군 읍지인 『湖山錄』(1619)은 韓汝賢이,<sup>55)</sup> 삼척부 읍지 『陟州誌』(1662)는 許穆이,<sup>56)</sup> 청도군 읍지 『鰲山誌』(1673)는 李重慶이,<sup>57)</sup> 성주목 읍지 『京山志』(1677)는 李元禎<sup>58)</sup>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는데 모두 읍지의 서문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중기 다른 지역의 사찬읍지들은 서문이나 발문이 있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편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대체로 인물 자료가 풍부하고, 시문이나 기문이 많이 실려 있다. 그러나 김세렴은 『포산지』 편찬을 주도하였지만 서문이나 발문을 남기지는 않았다.<sup>59)</sup>

51) 『永嘉誌』 永嘉誌序.

52) 鄭述 字道可 號寒岡 居星州 以寒喧堂 外曾孫 長養於寒喧古宅 常以玄風人自處 倡明道學 爲世大儒 官至大司憲(후략). 『포산지』 인물.

53) 1616년 봄 상주 목사 康復誠이 이준에게 “그대가 아니면 누가 읍지를 편찬하겠느냐”며 요청하여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하기 시작하여 丁好善이 목사로 왔을 때 『상산지』 10目, 2卷으로 완성하였다. 書商山誌後; 강복성은 1614년 상주목사로 부임하였고『광해군일기』 6년 9월 16일(을축), 정호선은 1617년 부임하였다『광해군일기』 9년 2월 25일(경신).

54) 『宣城誌』 宣城誌序. 이 책의 서문의 앞부분 한두 장 떨어져 있지만 서문의 끝에 1619년 권시중(늑로, 櫟老)이 쓴 것으로 나온다.

55) 이문중, 「17세기초 서산지방의 지리적 상황-호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4, 1992, 112쪽; 홍제연, 「『湖山錄』에 나타난 조선전기 瑞山의 사회상」, 역사민속학 11, 2000, 207쪽.

56) 배재홍, 「三陟府使 許穆과 『陟州誌』」, 조선사연구 9, 2000, 209쪽.

57) 『鰲山志』 鰲山郡 古今史蹟序.

58) 이원정, 『京山志』 京山志序.

59) 채몽연이 스승인 정구의 신도비명 개찬을 요청하면서 신희에게 “서원지와 여덟 고을의 地誌는 본래 義理를 담은 책이 아니니 모두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점을 보면, 정구 문인 중에서도 읍지 편찬을 저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다만 그가 제정한 학규와 향약 및 제영 뒤의 遺事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포산지』도 다른 지방의 읍지처럼 지방통치자료, 향촌질서의 재편과 안정, 재지 세력의 현양, 군현의 역사지리서·역사서, 군사·방어의 강화와 대비, 교화의 수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sup>60)</su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포산지』 이미지 파일에는 표지부터 면수를 매겨 놓았다. 분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의 시작하는 면을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포산지』의 구성 항목

항목	면	항목	면	항목	면	항목	면	유사	면
정도	3	관사	8	군정	15	선척	22	항목	
건치연혁	3	누정	8	진결	15	공장	23	한훤당 유사	63
읍호	4	학교	10	조세	16	관속	23	신도비명 병서	68
장면	4	역원	11	진상	16	향임	23	곽항 제문	80
성씨	4	사찰	11	공물 대동전	17	명환	24	낙천 배신 행록	82
풍속	5	교량	12	창고	19	인물	25	제낙천행록 하	86
산천	5	사묘	12	관전	20	효자	27	예곡 곽율 행장	87
토산	6	총묘	13	제언	20	열녀	28	한강 선생 정구 신도비명	93
약재	7	고적	13	잡축	21	학규	29	대암 박성 행장	109
성곽	7	호구	14	장시	21	향약	36	존재 곽준 신도비명	119
봉수	8	무반	15	요역	21	제영	53	망우당 곽재우전 부 곽재우 상소	128

수 있다. 『국역 투암선생문집』, 2013, 120쪽 ; 김학수, 「한강(정구) 신도비명의 개정논의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79쪽 참고.  
60) 楊普景, 앞의 논문, 1998, 58~70쪽.

『신증동국여지승람』 현풍현의 구성 항목은 정도, 건치연혁, 관원, 군명, 성씨, 산천, 토산, 성곽, 봉수, 누정, 학교, 역원,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효자이다. 위의 표 1을 보면, 『포산지』는 장면, 풍속, 약재, 관사, 교량, 총묘, 호구, 무반, 군정, 전결, 조세, 진상, 공물대동전, 창고, 관진, 제언, 잡축, 장시, 요역, 선척, 공장, 관속, 향임, 열녀, 학규, 향약, 제영, 유사 등을 추가하였다. 대체로 지방 통치의 기초 자료가 되거나 향촌 교화에 필요하거나 지역 인물 현양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다른 읍지들과는 달리 『포산지』에는 학규와 향약 및 유사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포산지』와 별개로 학규, 향약, 유사들을 합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열녀와 제영 사이에 김세렴이 지은 학규와 향약이 들어 있다. 학규·향약 다음에 제영의 시와 기문, 유사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별면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약 항목에는 장현광의 체포산규약후와 이준의 체(포산향약)가 포함된다. 김령은 인조의 명으로 김세렴의 현풍향약이 전국 각 군현에 실시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sup>61)</sup>

예조에 啓下한 公事 때문에 감사가 주와 현에 반포하여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풍 수령 김세렴이 이전부터 이미 시행한 것인데, 여씨향약과

61) 김령, 『계암일록』 1635년 3월 5일. 당시 경상감사는 통정대부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李基祚였다. 설석규 외, 『증보 경상도 선생인(상)』, 한국국학진흥원, 2005, 620쪽 ; 김세렴의 문집에는 玄風縣學規 제목 다음에 '學規及鄉約 筵臣有白于上者 上命頒于列邑'이란 말이 부기되어 있으나 『포산지』에는 없다. 『동명집』 6, 雜著, 玄風縣學規.

주자향약 및 퇴계 선생이 제정한 조목을 아울러서 約法을 만들었고, 겸해서 율곡 이이의 향약도 포함하였다. 또 향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옛 규례를 취하고, 『소학』의 훈계를 추가하여 이름을 학규라 하고는, 諸生들에게 시행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감사가 현풍의 향약과 학규를 가지고 함께 반포한 것이다. 남연(南巖, 1598~1664, 당시 예안현감)이 평소 싫어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막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듯하니, 웃을 만하다. 향중의 간악한 무리들이 역시 불편하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으나, 이 자들 역시 그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었으니, 더욱 위로가 된다.

향약 다음으로는 제영으로 53쪽부터 57쪽까지는 13수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중 3수는 김세렴이 지은 것이며, 이호민, 이광윤, 이욱, 신지제, 황여일의 시는 김세렴이 부임하기 이전의 것이다. 이경의, 이민구, 조정, 이식의 시는 김세렴이 부임한 이후에 김세렴과의 인연으로 지어진 것이다. 시에 이어 57쪽부터 63쪽까지는 기문으로 고려 말 이첨(1345~1405)의 양풍루기와 황준량(1517~1563)의 객사중수기이다.

63쪽부터 137쪽까지는 유사, 신도비명, 제문, 행록, 전 등 모두 10편의 유사(遺事)가 실려 있다. 원래의 글을 거의 그대로 실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정량을 줄여서 실고 있다. 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문장에 능하였던 김세렴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sup>62)</sup> 따라서 『포산지』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현풍현감으로 내려와 학규와 향약을 제정하고, 시문에 능했던 김세렴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포산지』 편찬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당연히 편찬 과정에서 현풍 사족들의 역할과 요구가 있었겠으나, 『포산지』만으로는 파

62) 김세렴은 문장이 풍부하고 또 才局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인조실록』 16년(1638) 7월 22일.

악하기가 쉽지 않다.

김세렴은 1634년 5월 16일 지역의 인물들과 함께 풍영대에 올라 놀면서 기념으로 풍영대에 제명을 새겼다.<sup>63)</sup> 박상절의 『풍영제현행략』에는 풍영대제명석각도와 함께, 당시 와서 놀았던 인물들의 행적을 나이순으로 적고 있다.<sup>64)</sup> 당시 참여한 인물은 김세렴, 나이준, 김대용, 김선영, 곽홍연, 곽홍장, 조함세, 김시준, 곽태원, 박동형, 곽의창, 허암, 박형룡이다. 이들은 당시 21세에서 34세 사이로 김세렴과는 8살에서 21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김세렴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이준, 김대용은 1639년, 김선영, 곽홍장, 곽태원은 1640년에 현풍 향록에 등재된 인물이다.<sup>65)</sup> 곽홍연, 김시준, 박동형, 곽의창은 향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현풍 인물들이며, 조함세, 허암, 박형룡은 다른 고장 사람들이지만 당시 현풍에 와 있던 인물들이다.

김세렴은 현풍고을에 부임하여 경내의 선비들을 모아 性理諸書를 강론하였는데, 나이준은 『근사록』 한 부를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김대용은 김굉필 5세손이며, 박동형은 박민수의 아들로 박성의 손자이고, 곽홍연

63) 이것은 절벽에 새겨져 있던 것인데 무너져 땅에 떨어진 것을 동민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다. 쌍계1리 마을지 편찬위원회, 『雙溪마을誌』, 2000, 14쪽; 蔡洙穆, 『東溟先生의 遺集』, 현풍향교, 2000, 372쪽.

64) 朴尙節, 『沂洛編芳』 風詠諸賢行略; 『기락편방』은 1607년(선조 40)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망우당 곽재우가 함안의 용화산 아래에서 뱃놀이를 할 때 匡西 朴震英이 從遊하였고, 그후 28년이 지난 1634년(인조 12)에 동명 김세렴이 현풍의 풍영대에서 遊會할 때 浣石堂 朴亨龍이 宗유하였는데, 광서와 완석당의 후손인 박상절이 이에 『龍華山下同泛錄』과 『풍영대제명석각도』를 묶어 『기락편방』이라 題하여 1758년(영조 34)경에 刊印한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락편방』 해제.

6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향교자료집성(I)』,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397~398쪽.

과 곽홍장은 모두 곽간의 증손이다. 곽의창은 곽규의 증손으로 곽삼길의 손자이며, 언문 편지를 많이 남긴 곽주의 아들이다. 김선영은 김극창의 아들로 김세렴과 같은 성관이며, 1636년 과거에 급제하여 청송부사까지 역임하였다.<sup>66)</sup> 허암은 허봉의 손자인데, 김세렴은 허봉의 외손자이다.<sup>67)</sup>

『해사록』에서는 김세렴이 통사부사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처소를 이들이 찾아와 여러 날을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다.<sup>68)</sup>

1636년(인조 14) 8월 23일 현풍의 생원 나이준은 예천에서 통신부사 김세렴을 찾아보고 23일, 24일 이틀이나 함께 자는 등 5일을 예천과 안동에서 함께 지내다가 27일 헤어졌다.

8월 30일에는 현풍의 선비(士人) 박민수<sup>69)</sup> · 박동형 · 조합세 · 곽의창 · 곽혜 등이 永川으로 찾아가 통신부사인 김세렴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에 함께 자고 다음날 현풍으로 돌아갔다.

9월 3일에는 낮에 구어역 도달하니, 현풍 현감 유여해 · 장기 현감 양응함이 와서 기다렸다. 현풍의 下吏 김홍룡 등 수십 인과 官婢 雪梅 등 수십 인이 와서 뵈고, 술과 안주를 대접했다. 이에 앞서 상사(통신 정사 임광)가, “현풍 현감이 일본으로 데리고 갈 사람을 보내지 않으니, 이는 우리 사행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하여, 三公兄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김세렴이 “현풍 사람들이 모두 옛날 현감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아전들을 刑訊하여 실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 현감은 곧 나와 직무를 교대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직무를 교대한 사람을 존중하였으니, 억누르고 욕보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여, 상사가 웃으며 김세렴의 말을 따랐다.

66) 『병자별시문무과방목』; 金善英爲靑松府使 『승정원일기』 현종 4년 6월 21일(정사).

67) 채수목, 앞의 책, 371~414쪽 참고.

68) 1636년 당시 상사(大使)는 任統이었고, 김세렴은 副使로 통정대부 행홍문관응교 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춘추관관수관 세자시강원보덕이었다. 『海槎錄』 聞見雜錄.

69) 박성의 양자이다.

9월 6일에는 현풍의 선비(士子) 곽홍해·곽홍연이 보러 왔는데,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이 되었다. 이들은 14일까지 머물다 작별을 고하고 돌아갔으며, 이날 현풍의 유생 곽위국(70)·곽홍재·김대용·김시준·곽태원 등이 김세렴을 보러 왔다. 16일에는 김세렴이 곽위국·곽태원·김대용과 함께 왔으며, 18일 김세렴은 동래 부사와 작은 술자리를 마친 뒤 저녁에 생원 곽위국 등 여러 사람이 묵는 곳으로 찾아왔다. 이들은 19일 현풍으로 돌아갔다.

『포산지』는 김세렴이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풍영제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각종 사적과 인물 선정, 지리 정보 수집에 협조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풍 지역의 주요 인물들이 수록될 수 있었다. 『포산지』 수록 인물들은 대체로 현풍 사족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현풍 곽씨들이다.

『포산지』에는 조선 중기에 활약한 走字 향렬의 인물 8명이 나온다.<sup>71)</sup> 곽월(郭越), 곽규(郭趨),<sup>72)</sup> 곽익(郭趨)·곽율(郭趨), 곽황(郭趨), 곽간(郭趨), 곽준(郭趨)에다가 곽준에 附記되어 있는 동생 곽근(郭趨)을 넣으면 8명이 된다. 이들을 흔히 현풍팔주(현곽팔주)라 부른다. 한편, 김굉필과 도동서원의 別廟에 모신 네 사람을 菴山五賢이라 한다. 이들은 학행이 뛰어난 현풍 출신의 다섯 인물로 김굉필, 곽승화, 원개, 배신, 곽율이다. 도동서원

70) 박성의 외손자이다.

71) 김기빈(2010, 한국고전번역원)이 번역한 이익의 『성호전집』 66 拙翁 郭公 行狀의 각주에는 포산 오현과 현풍팔주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졸용은 곽율의 증손인 곽식(郭趨, 1655~1713)이다. 그는 玄風八走를 郭安邦 고손자대(玄孫代)에서 玄郭八走 현풍 곽씨 중에 禮谷 곽율(郭趨)을 포함하여 행실을 닦아 이름이 난 중형제 8명을 말하나, 실제 족보에는 곽간(郭趨), 곽월(郭越), 곽초(郭趨), 곽간(郭趨), 곽준(郭趨), 곽주(郭趨), 곽여(郭趨), 곽익(郭趨), 곽율, 곽황(郭趨) 등 10명이 실려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72) 포산곽씨 청백리공 후 파계도에는 규(趨)이다.

에는 정구도 배향하고 있지만 성주 사람으로 보아 포산오현에는 넣지 않는다. 『포산지』에는 광승화와 원개는 나오지 않는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이들은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에게서 배운 인물들이다.<sup>73)</sup> 17세기 전반 『포산지』에서는 정구를 현풍인으로 인식하였음에 비하여, 광승화와 원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는지 누락하였다.

『포산지』에는 명환 전평원·유덕수와 함께 인물 25명, 우거 1명, 효자 12명, 열녀 5명이 실려 있다.<sup>74)</sup> 43명 가운데 29명이 현풍 광씨이고,<sup>75)</sup> 현풍 광씨가 아닌 경우는 14명뿐이다. 서흥 김씨가 김종근, 김굉필, 김언숙, 김대, 김밀 등 5명, 밀양 박씨는 박희, 박성 등 2명, 나머지는 배신, 엄계, 이장근, 정구, 조한부, 채굉, 허세겸 너 허씨 등이다. 현풍 지방을 주도하였던 사족은 현풍 광씨가 중심이었으며, 서흥 김씨와 밀양 박씨는 현풍 광씨와의 결혼을 계기로 현풍에 이주해왔다.

『포산지』에는 李長坤 관련 기록이 다른 인물에 비해 길게 나오지만 유사에는 신지 않았다.<sup>76)</sup> 이장근은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체현을

73) 郭承華 安邦之子 與金宏弼同遊學金宗直之門 宗直稱以金郭兩秀才 享道東別祠. 元樂 成宗朝人 與金宏弼遊學金宗直之門 薦授齊郎不就 并享道東別祠

74) 高麗 郭元振, 郭忠貫, 郭郢, 郭居仁, 本朝 郭宗, 郭安邦, 金中坤, 金宏弼, 朴嘯, 嚴誠, 郭順宗, 郭之藩, 郭之雲, 郭詢(郭珣), 裴紳, 郭越, 곽규(郭攄), 곽익(郭趨)·곽을(郭起), 郭趨, 郭趕, 鄭述, 朴惺, 郭趨, 郭再祐, 寓居 李長坤. 효자 고려 郭儀, 본조 蔡宏, 金彦塾, 金岱, 金密, 郭履常·郭履厚, 郭潔·郭清·郭浩·郭潤, 水軍曹漢夫 烈婦 郭之雲妻 李氏, 郭攄妻 洪氏, 郭趨女 郭氏, 許世謙女 許氏, 郭再祺妻 李氏.

75) 열녀들의 경우는 남편의 성씨를 따랐다.

76) 창녕에 寓居하였는데 살림이 넉넉하였다. 樂工과 歌姬를 두고 술과 고기를 풍부하게 갖추어서 날마다 놀이하며 매와 개를 부려서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다. 편하고 한가롭게 세상을 마쳤으니 일생 부귀에 모자람이 없었다. 다만 嫡家에 자녀가 없어 공의 아름다운 행실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한스러우니, 한탄을 금할 수 있으랴. 安謏, 『己卯錄補遺』 上 李長坤傳의 일부.

국문을 하려 할 때 눈물로 극간하여 임금의 화가 조금 풀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이장곤이 신문할 때 죄인이 이장곤의 字를 불렀다가 이름도 불렀다가 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창녕에서 살았다.<sup>77)</sup>

그는 김굉필의 제자이며, 비록 창녕에 살았다고 나오지만 그가 산 곳은 현풍현과 접해 있었다.<sup>78)</sup> 이에 그를 우거에 분류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고, 누정에는 그가 지은 금계돈 정사, 학부정,<sup>79)</sup> 대암정이 나온다. 그러나 이장곤이나 그가 지은 누정은 1786년과 1832년의 『현풍현읍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1841년부터 다시 실리기 시작하여 1871년과 1895년의 『영남읍지』와 1899년의 『현풍군읍지』에 나온다.<sup>80)</sup> 1746년(영조 22) 9월 영의정 金在魯가 기묘사화에 희생된 인물들 중 이장곤 등에게 증직과 증시를 요청하여 허락받았다.<sup>81)</sup> 그러나 그때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77) 『국역 경현록』, 206쪽.

78) 김굉필의 동문 친구인 이승연은 창녕에 살았는데 반나절 거리에 살았다. 그의 두 아들인 李長吉과 이장곤은 모두 김굉필의 제자이며, 막내아들 李長培는 김굉필의 둘째 사위가 되었다. 셋째사위는 정응상으로 정구의 조부이며 광윤의 외조부이다. 『국역 경현록』, 192~194쪽, 204~208쪽, 15~16쪽.

79) 『琴軒先生實紀續』 부록에는 鶴皋亭으로 나온다. 李光洙 역, 1995, 『琴軒先生實紀』, 학민문화사, 278쪽.

80) 이장곤의 『琴軒先生實紀續』(1898) 부록에 실린 『포산지』의 이장곤, 학고정, 대암정, 금계돈 기록은 1895년 무렵의 협풍읍지에 의한 것으로 김세렴의 『포산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에 실린 『창산지』의 이장곤 기록은 『포산지』 우거 및 『여지도서』의 창녕현 인물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포산지』를 엮으면서 정구가 편찬한 『창산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역 『금헌선생실기』, 275~279쪽.

81)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난번 고 좌상의 말로 인하여 己卯名賢(중종 14년, 1519)들에게 모두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허다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시호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벼슬이 正卿으로서 시법상 시호를 내려야 할 이장곤·채세영 등의 몇 사람 외에 기준·신명인·김구·한충·윤자임·박세희·박영·유운·박훈·김세필 등 열 사람 및 종실인 파릉군 경·시산정 정숙은 학문과 명절이 특이한 만큼, 해조로 하여금 증직과 증시를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

1856년(철종 7) 3월에 가서야 貞度라는 시호를 받았다.<sup>82)</sup>

이장곤 관련 기록은 18세기 중반 이래 己卯名賢을 높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보다 앞서 『포산지』에는 김굉필의 제자이며, 기묘명현인 점이 고려되어 실리게 되었다. 18세기 중반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이장곤과 관련하여 대암과 금계돈만 나오고 대암정은곽지운이 쌓은 것으로 나온다.<sup>83)</sup> 『포산지』에 있던 인물이 『여지도서』에서 빠졌거나, 『포산지』에 없던 인물이 『여지도서』에 추가된 인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포산지』와 『여지도서』의 수록 인물 비교

	빠진 인물	추가된 인물
名宦	柳德粹	金世濂
인물	朴暘, 郭順宗, 郭詢(郭珣), 곽익(郭趨), 郭趨, 郭趕, 鄭述	郭承華, 元槩, 郭恒, 郭世翼
우거	李長坤	
효자	金彦塾, 金岱, 金密	水軍 曹漢連, 正兵 金禮生, 金處精, 裴繼緒, 郭宜昌, 郭愈昌, 朴坻, 驛吏 張厚榮
孝女		曹文漢女 曹氏, 曹漢連女 曹召史, 郭泰健妻 李召史
烈婦(烈女)	郭之雲妻 李氏, 郭尙妻 洪氏, 許世縑女 許氏	郭履常妻 愼氏, 郭弘垣妻 朴氏, 郭壽亨妻 權氏, 金汝鐸妻 李氏, 金時宗妻 孔召史

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22년 9월 6일(기해).

82) 卒右贊成李長坤諡號貞度. 『승정원일기』 철종 5년(1854) 11월 16일(신사).

83) 臺巖 在縣西南二十五里 大江邊有巖 斗起江心 上可坐百餘人 李長坤遊賞多年 後爲郭之雲所築, 金鷄墩 在縣北十里長澤邊 李長坤 所築 今有遺址.

표 2를 보면, 『포산지』에 실려 있던 정구와 곽순은 각각 성주와 영천 지역에 실려 있다. 『여지도서』에 추가된 곽승화와 원개는 모두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은 이들로 도동서원의 별사에 배신, 곽윤과 더불어 위패가 봉안된 인물이다. 김언숙은 김굉필의 아들, 김대는 김언숙의 아들, 김밀은 김언숙의 서자이다. 특히 김밀의 효행은 정구가 칭찬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여지도서』에서는 빠져 있다.

한편, 개인이 쓴 최초의 전국 지리지인 柳馨遠(1622~1673)의 『東國輿地志』(1656)는 대체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따랐다.<sup>84)</sup> 다만 성씨와 제영 항목은 삭제하였는데, 이는 성씨의 본관보다는 인물의 거주를 중시하였고, 전국 지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량을 생각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는 고모부였던 김세렴과 교류하면서 『포산지』의 체제를 눈여겨보았겠지만, 전국 단위의 지리지를 편찬하게 되면서 김세렴의 『포산지』 체제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84) 柳馨遠의 『東國輿地志』(1656, 규장각 古5123-1)에는 경상좌도에 해당하는 현풍현이 들어있었을 丁冊 卷之四上이 남아있지 않아 『포산지』의 구성 항목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東國輿地志事要總目'에 各邑·建置沿革·郡名·形勝·風俗·山川·土產·城郭·公署·學校·宮室·倉庫·烽燧·郵驛·關梁·祠廟·陵墓·寺刹·古蹟·名宦·流寓·人物·烈女 등의 항목을 수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형원은 1643년 겨울에는 고모부 김세렴이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자 이곳에 따라 갔으며, 김세렴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를 유람하였다. 이후에도 영남·호서·금강산 등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양보경,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문화역사지리 4, 1992, 34~35쪽.

#### 4. 편찬 목적

인조반정 이후 모두 14차례의 역모 사건이 있었다.<sup>85)</sup> 김세렴이 현풍 현감으로 내려오기 1년 전인 1631년(인조 9) 광해군 복위 모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현풍 인근인 합천의 정한·정부·정니·문일광·유지수·유지환, 성주의 박훈, 함양의 양기·양환, 고령의 박희집·박광선, 거창의 유배인 여후망, 창녕의 성지도, 榮川의 유배인 홍성징 등 대북 계열의 많은 인물들이 희생되었다. 이들은 인조반정 이후 처형당한 정인홍의 餘黨으로, 정한은 1628년(인조 6) 유효립의 무리와의 연결되었으나 요행히 벗어났으며, 1630년(인조 8) 1월에도 거사를 모의하였다. 1629년(인조 7) 11월 양경홍 사건에 동참했던 한희와 서로 약속하여 북쪽에서 변란이 생기면 남쪽에서 호응하려 하였다. 고령의 박희집은 박훈·유지수를 통해 정한과 연결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박종주는 폐모론에 개입했다가 처형되었으며, 유배되었던 여후망·홍성징과 자주 만나 불만을 털어놓고 광해군의 복위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박광선은 박희집의 조부이다. 이 사건으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던 대북 세력은 철저히 제거되었다. 이후 대북이 주도하는 모반 사건은 나타나지 않게 되며, 결국 이 사건은 대북의 마지막 모반 사건이 되었다.<sup>86)</sup> 성주목은 박훈이 연루되어 처형됨에

85) 김용흠,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역사학연구』 27, 2006, 172~173쪽.

86) 박병련, 「광해군 복위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과」, 『남명학연구』 11, 2002, 229~256쪽. ; 김우철, 「인조 9년(1631) 鄭澣 모반 사건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39, 2010, 115~118쪽, 130쪽 ; 『추안 급 국안』 11, 흐름, 2014는 모두 정한 옥사 문서들이다.

따라 星山縣으로 강등되었다.<sup>87)</sup>

김굉필신도비에 글씨를 쓴 배홍우(1580~1627)는 배대유(1563~1632)의 아들로 영산현에 거주하였는데 둘 다 덕천서원 원생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 가문은 1631년(인조 9년) 광해군 복위 모의 사건에 배홍우의 처남들인 유지수와 유지환이 참여하여 처형되면서,<sup>88)</sup> 배대유 가문은 이후로는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으며, 퇴계학파로 경도되지도 않았다.<sup>89)</sup> 김굉필신도비에 篆을 쓴 여효증(1604~1679)은 이때 성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1635년 문과에 급제하여 선산부사를 역임하였다. 창녕의 성지도는 광재우의 사위인 성이도의 동생이었다.<sup>90)</sup> 고령의 박희집·박광선의 세거지는 고령 桃津으로 현풍과 접해 있으며 박광선과 그의 아들 박중주는 내암 정인홍의 문인이다.<sup>91)</sup>

1635년 봄에는 김세렴 자신이 이기안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sup>92)</sup> 이 무렵 인조는 김세렴의 현풍향약을 전국 각 군현에 실시하라고 명하였다.<sup>93)</sup> 『포산지』의 유사는 인조반정과 잦은 역모 사건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멸문지화를 벗어나야 했던 현풍 지역 사족들과 좌천된 상황에서 정치 재기를 모색해야 해야 했던 김세렴과의 결합 속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포산지』 작업 이전부터 김세렴과 현풍의 사족들은 1632년에는 장현

87) 『인조실록』 9년(1631) 4월 8일(신해).

88) 『인조실록』 9년(1631) 2월 3일(정미).

89) 박병련, 앞의 논문, 244~247쪽.

90) 박병련, 앞의 논문, 250쪽.

91) 박병련, 앞의 논문, 240쪽.

92) 『인조실록』 13년(1635) 2월 24일(을사) ; 『추안 급 국안』 14, 흐름, 127~191쪽.

93) 김령, 『계암일록』 1635년 3월 5일.

광으로부터 제낙천행록하와 박성행장을, 이준으로부터는 김세림이 지은 향약의 체를, 1633년에는 다시 장현광에게서 제포산규약후를 받았으며, 정경세로부터도 생전에 곽준 신도비명을 받을 수 있었다. 김세림과 현풍 사족들은 북인계 남인으로 영남 지역 남인을 대표하는 장현광, 정경세, 이준과의 연결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포산지』 편찬으로 이어졌고, 이때 받은 글들은 이 책에 모두 실려 있다.

『포산지』 제영 뒤에 수록된 遺事로는 유사, 신도비명, 제문, 행록, 전 등 모두 10편이다. 김굉필, 곽황, 배신, 곽율, 정구, 박성, 곽준, 곽재우 등 8명의 행적이다. 이중 4편은 김세림이 현풍현감으로 부임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곽황과 배신을 제외하고는 태어난 순서대로이며, 김굉필은 유사에 이어 신도비명이 있고, 배신도 곽삼길의 행록에 이어 장현광의 글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후 편찬된 『현풍읍지』에서는 『포산지』에 실려 있는 김굉필과 곽준의 신도비명만 실고 나머지 기록은 실지 않았다.<sup>94)</sup> 『포산지』에 수록된 유사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포산지』에 수록된 유사

제목	생몰연도	나이	저술연도	저술자	출전	
寒暄堂遺事	1454~1504	51		李績(李勣)	景賢錄上	景賢錄
				南孝溫		秋江師友錄
				南孝溫		秋江冷話
			1610		景賢續錄補	賜從祀文廟

94) 『현풍현읍지』(1786), 『경상도읍지』(1832), 『현풍현읍지』(1841)에서는 비관으로 김굉필, 곽율, 곽준, 곽재우 4인의 신도비명이 들어있으며, 『현풍현읍지』(1865), 『영남읍지』(1871, 1895), 『현풍군읍지』(1899)에는 신도비명이 아예 없다.

					遺上(1719)	先告事由文
神道碑銘 并序			1626 (立碑)	旅軒 張顯光	景賢續錄補遺下, 旅軒先生文集卷之十二	
郭趨祭文	1530~1569	40	1569	退溪先生	濯清軒先生實紀	
洛川表紳行錄				門人 郭三吉	洛川先生文集	
題洛川行錄 下	1520~1573	54	1632	張顯光	洛川先生文集 旅軒先生文集 卷之十 跋	
禮谷郭起行狀	1531~1593	63	1629	李厚慶	畏齋先生文集 卷之二 行狀	
寒岡先生鄭述神道碑銘	1543~1620	78	1633 (立碑)	文貞公 申欽	象村稿 卷之二十六	
大庵朴惺行狀	1549~1606	58	1632	旅軒 張顯光	旅軒先生文集 卷之十三	
存齋郭趨神道碑銘	1550~1597	48	1634 (立碑)	愚伏 鄭先生	愚伏先生文集 卷之十七	
忘憂堂郭再祐傳 附 郭再祐上疏	1552~1617	65	1617	裴大維	忘憂先生文集 傳 忘憂先生傳	
			1613	郭再祐	忘憂先生文集 救永昌大君疏	

『포산지』에서는 지역의 뛰어난 인물과 지리 정보들을 김굉필(1454~1504), 이황(1501~1570), 정구(1543~1620)로 연결 짓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곳곳에는 현풍 사회를 주도해온 북인계의 흔적이 보인다. 김굉필은 이황과 조식 및 그 문인들에 의해 東國儒宗으로 공인받은 인물이었다.<sup>95)</sup>

95) 황위주는 “명종 선조 연간에 그는 비로소 東國儒宗으로 공인받았다. 여기에는 이황과 조식 및 그 문인들의 역할이 컸다. 이황은 그를 鄉先生과 구별되는 近世道學之宗으로 평가하였고, 조식 또한 그를 近世儒宗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런 견해는 문인들에게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래서 선조 8년(1575)에 贈諡, 광해군 2년(1610)에 문묘종사를 관철시켰으며, 마침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학문적으로는 세상에 이름난 유학의 종장(名世之儒宗)으로, 정치적으로는 한 시대를 구제한 국가적 인물(國器)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황위주, 寒暄堂 金宏弼에 대한 評價와 追崇樣相, 퇴계학보 137, 2015, 185~186쪽.

낙천배신행록은 문인 곽삼길이 지은 배신(1520~1573)의 행록을 2/7로 줄인 것이다.<sup>96)</sup> 배신은 소식만이 아니라, 이황, 성운, 임훈의 문하를 왕래하였다. 1571년에 童蒙敎官이 되어 『소학』을 우선으로 삼아 가르치고 행실로 모범을 보이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sup>97)</sup> 배신은 황준량·오건과 교유하였으며, 박성과 곽준은 그의 문인이다. 김세렴은 1633년 이현룡 등 200명과 함께 배신의 증직을 청하는 상소(請贈職疏)를 써 올리기도 하였다.<sup>98)</sup> 예조에서는 정성은 가상하나 포상할 근거가 없고 실천한 행적을 상고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99)</sup>

현풍 사람들이 김굉필에 이어 추송할 첫 인물로 배신을 꼽았던 것 같다. 그는 스승인 조식이 죽자 나라에서 그의 행적을 알고자 하였으므로 많은 문도 중에 천거되어 조정의 명으로 남명선생행록을 지어 올렸다.<sup>100)</sup> 1677년(숙종 3) 유생 곽수하 등이 정구, 박성과 함께 도동서원에 배향을 청하는 상소(請從享道東書院疏)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sup>101)</sup> 1733년(영조 9)에 이르러서야 도동서원에 別祠를 세워 곽승화, 원개, 곽율과 함께 봉향되었다.<sup>102)</sup> 『포산지』에는 배신이 학행과 문장이 있어 유일로 천거

96) 『낙천집』 2 부록 門人撰述 郭三吉.

97) 『선조수정실록』 4년(1571) 3월 1일(임술) 재능이 없는 동몽교관을 도태하고 특별히 명유(名儒)를 가려 맡길 것을 명하였다. 이조와 예조가 裵紳과 趙穆을 천거하였는데, 이들은 다 영남 선비들이었다.

98) 『낙천집』 2 부록 請贈職疏 : 裵洛川贈職上疏 玄高四十餘員來會 玄倅製疏 李見龍疏頭 趙咸哲寫疏 自高校奉疏. 『치재일록』.

99) 『인조실록』 11년(1633) 10월 13일(임신).

100) 『낙천집』 1 行狀 南冥先生行錄 ; 『남명집』 4 補遺 行錄(○贈職入啓時 禮官索行狀 錄此以與之) 裵紳.

101) 『숙종실록』 3년(1677) 11월 6일(기묘).

102) 『국역 경현록』, 895쪽.

되었지만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과,<sup>103)</sup> 김굉필의 아들 김연숙의 비갈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sup>104)</sup> 영과정을 노래한 시 두 수가 실려 있다.<sup>105)</sup>

『포산지』 명환에 실려 있는 유덕수(미상~1589)의 선정비문은 배신이 지었으며, 곽준이 글씨를 썼다.<sup>106)</sup> 유덕수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과 내통한 혐의로 선홍복이 형벌을 받다 죽었는데, 이때 공초를 담당하던 검열 이진길이 유덕수의 집에서 讖書를 발견하였다하여, 국문을 받다가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sup>107)</sup> 권문해는 전 홍주목사 유덕수가 역적과 사촌간이라는 사실이 그 무리를 문초할 때 밝혀졌기 때문에 곤장을 맞아 목숨을

103) 裴紳 字景餘 號洛川 有學行文章 以遺逸薦未及用以卒 遺事在後.

104) 金彦塾 寒暄堂之子 年六十三 丁內憂 居廬三年 一不來家 裴紳撰 碣立 ; 『낙천집』 1 墓碣 部將金公墓表.

105) 映波亭 縣西五里 西山城下縣西五里 西山城下○裴紳詩曰 誰主誰賓野外亭 二天今日照民情 江風爲掃三庚熟 山月應將五夜清 思入鴻濛遺世界 心將仙鶴蛻蜃腥 忘形言志還忘拙 君子千秋始見爭 又詩 爲觀民隱下南江 阜蓋含輝映石砭 浦遠沙平鴻陣兩 天開雲盡鶴儀雙 青精已熟丹砂鼎 甘露還承白玉缸 勝事自從湖海夕 任看風浪謾春撞.

106) 柳德粹 有善政碑 其文曰 公姓柳 諱德粹 字仲精 文化人也 公性淡而心溫氣 平而量雅銳 意恤辰民瘼俱祛存心實惠聞境咸戴是 豈非推赤心置人腹者耶 下車之初 首以興起斯文 爲念重修聖廟敦事書院將壽吾道之正脈 又豈非吾侯之力耶 薄均貢賦不加一毫之斂 賑貸凶荒民 無一命之夭好善之心如傷之念終始不渝其他 一號令之善 一舉事之美 有不足毛舉於其間也 秩未滿陞超而去也 隨後所載惟書冊數篋而已 黃童白叟遮道號泣 又可見吾侯之清德亦足以起 吾民去後之思而難忘者也 銘曰 去後之思 由公之德 民之難忘 遺愛之篤 心銘口溢 遂形于筆 筆之無已 有屹斯石 右裴紳撰 郭越書. 『낙천집』 1 雜著에는 玄風縣監柳公善政碑文이 보이나, 『포산지』와 달리 ‘右裴紳撰 郭越書’는 없다.

107) 『선조실록』 22년(1589) 12월 12일(을유) ; 기축옥사는 동서 분당 후 서인이 정국 주도를 위하여 복인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 호남과 경상 우도 지역을 근거로 학문활동을 펼친 인물들이었다. 정개청, 이발, 홍가신, 백유양, 김우옹, 이진길, 한백겸, 한준겸 등을 그 주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남북 분당기에 활동했던 초기 복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학문상 서경덕, 조식의 계통을 이었다. 정호훈, 앞의 논문, 199쪽.

있었다고 적고 있다.<sup>108)</sup> 1589년 기축옥사는 동서분당 이후 서인이 정국 주도를 위하여 동인(나중에 북인)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사건이었다.<sup>109)</sup>

사위 이후경이 지은 곽을 행장에 의하면, 곽을은 조식의 제자로 배신·김부륵·김우옹과 서로 학문과 덕을 닦았으며 박성·곽준과 중유하였다.

『포산지』 인물에는 정구(1543~1620)가 현풍인을 자처하였다고 기록하였으며, 성씨에는 청주 정씨가 보인다.<sup>110)</sup> 관수정, 낙고정사, 도동서원, 연택, 곽준, 김밀, 한훤당유사, 김굉필 신도비명, 한강선생정구신도비명 등의 항목에서 정구와 관련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포산지』에 실린 정구 신도비는 『한강연보』에 실린 개정본과 비슷하나 일부 내용이 더 들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다. 정구 신도비명은 신흠이 생전에 지은 것이며 글씨는 김세렴이 썼다. 저술 목록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신도비 건립 이후 정구의 저술 목록을 다시 조사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sup>111)</sup> 정구는 1677

108) 己丑 十二月 二十五日 前洪州牧使柳德粹 以逆賊四寸 出於其黨之招 殞於杖下. 『草澗先生文集』 卷之四 雜記. ; 『국역 초간일기』 745쪽.

109) 정호훈, 앞의 논문, 198쪽.

110) 김굉필 묘역에는 鄭應祥 처 서흥김씨(1482~1562)의 묘가 있다. 그는 김굉필의 셋째 딸이며, 정구의 조모이다. 그는 남편을 잃은 뒤에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인 현풍에 와서 40년 가까이 살다가 1562년 81세로 죽었다. 이로 인해 『포산지』 편찬 당시 청주 정씨들이 현풍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구가 20세 되던 1562년까지 조모가 생존한 것을 보면, 정구는 조모가 살던 현풍의 한훤고택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듯하다. 『寒岡集』 13, 先祖妣淑人贈淑夫人瑞興金氏墓誌 및 『포산지』 성씨·인물 참고.

111) 袁仁錄, 河洛圖書, 誠敬錄, 朱子書摠目, 標題家禮集覽補註, 大學答問, 書院志, 講穉立議는 『포산지』에만 나온다. ; 장동우는 『존경각소장자료목록』에 나오는 『가례(집람보주)』 4권 4책이 1603년 천곡서원에서 간행한 『가례집람보주』로 정구가 저술한 책임을 밝혔다. 장동우, 『『가례집람보주』에 대한 보고』, 『한강 정구의 경학과 예학』(미간행), 한강학연구원, 2015, 148~149쪽.

년 도동서원에 추가로 배향되었다.<sup>112)</sup>

정구는 사후 인조반정과 정인홍의 폐망은 남명학과인 복인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구의 제자들은 비명 개정을 통해 정구에게 존존했던 조식의 색채를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대신 이황의 성향을 부각시키려 했다. 조식뿐만 아니라 김굉필, 성운, 오건 등 정구의 학자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과의 관계까지도 축소시켰다. 이황→정구로 이어지는 도통체계를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결국 정구가 退溪嫡傳이라는 통설을 창조하였다.<sup>113)</sup>

신흙의 정구 신도비명에는 정구가 정인홍과 同學하였으나 정인홍이 자기의 소견만 고집하는 것을 미워하였고, 늘그막에 선현(이황)을 비방하고 국모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자 관계를 단절한 기록이 나온다. 이는 정구가 조식의 문하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정권을 주도했던 복인세력과의 관계를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장현광이 지은 박성 행장 또한 박성이 정인홍과 평소부터 중유하였고 또 의병의 진영에서 함께 일하였으나, 정인홍이 노망하여 잘못 들어감에 이르러서는 긴 편지로 타이르고 꾸짖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절교하였다고 하여 정인홍과 관계를 단절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포산지』에서는 향교의 명륜당 제액과 도동서원 액자가 이황의 글

112) 현풍의 생원 郭壽夏 등이 상소하여, 문목공 정구·고 교관 배신·고 부사 박성을 문경공 김굉필의 도동 서원에 享祀하도록 청하였다. 상소가 예조에 내려지자, 예조에서 단지 정구의 配享만을 허락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3년(1677) 11월 6일(기묘).

113) 이상은 김학수, 앞의 논문, 114~115쪽.

씨를 집자한 것이며, 향임을 두는 것과 현풍향약이 이황의 것을 참고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14)</sup> 특히 이황이 김굉필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생존 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동서원이 건립되어 이황의 유지를 이루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정구의 발문을 신고 있다.<sup>115)</sup> 김굉필은 이황이 높이 받드는 인물이고, 예안 현감을 역임했던 곽황의 제문은 이황이 예안 고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쓴 글이다.

곽율, 박성, 곽준,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곽준은 황석산성의 영웅으로 국가로부터 포상 받은 인물이다. 곽준신도비명은 정경세가 생전에 지은 것으로 정경세 사후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증조부인 곽승화가 김굉필과 더불어 김종직의 문하에서 중유한 사실은 나오나, 스승인 배신이나 소식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곽준이 장성하여서는 師友 간에 중유하여 內外와 輕重의 분별을 알았다는 내용만 나온다. 광해군 때 우의정 심희수와 청평 부원군 한응인은 “황석 산성이 함락되던 날 충효와 절의가 모두 곽씨의 집안에 모였으니 포상을 후하게 하여 존경하고 권장하는 모범이 되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하였다.<sup>116)</sup> 인조반정 이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114) 현풍향약은 여씨향약과 주자향약 및 이황이 제정한 조목을 아울러서 約法을 만들었고, 곁해서 이이의 향약도 포함하였다. 김령, 『계암일록』 1635년 3월 5일.

115) 『포산지』 학교 도동서원.

116) 『광해군일기』 2년(1610) 1월 5일(임오).

117) 『인조실록』 1년(1623) 11월 2일(무오).

안음 현감 곽준을 致祭하고 그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두도록 명하였다. 곽준은 학문에 종사하여 고을 사람들이 평소 善士라고 일컬었다. 임진년<sup>118)</sup>에 안음 현감이 되었는데, 산성을 수리하여 굳게 지킬 계책을 세웠다. 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밤낮으로 전투를 독려했으나 성 안의 사람들 대부분이 성에 맞줄을 내려 밤에 도망갔다.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에게 성을 나가 몸을 피할 것을 권유했으나 곽준은 듣지 않았다. 적이 성을 올라왔을 때도 곽준은 胡床에 걸터앉아 떠나지 않았는데, 적이 마침내 그를 죽였다. 이때 두 아들도 몸으로 아버지를 가려 보호하려다 삼부자가 동시에 죽었다. 그의 딸도 士人의 처로서 남편을 따라 병화를 피하다가 남편이 적에게 사로잡히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니, 충·효·열의 절개가 한 집안에서 나왔다. 선조조에 병조 참의를 추증하고 사제하였으며, 廢朝 때에도 증직을 더하고 사제하였는데, 筮臣 정경세가 다시 褒獎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곽재우(1552~1617)의 傳은 한 면이 떨어져 나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행히 『망우집』을 보면, 1617년 가을 시강원 보덕 지제교 배대유가 찬한 전으로 史院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sup>119)</sup> 그는 1617년(광해군 8) 망우당이 66세로 운명하게 되자 어명을 받들어 賜祭文을 지어올리고,<sup>120)</sup>

118) 정유재란을 말한다.

119) 배대유의 문집인 『모정집』과 『忘憂集』을 통해 확인해 보면 忘憂堂郭再祐傳의 찢어진 뒷 부분은 다음과 같다. 固未嘗少弛 而亭之有扁 志不忘也 卒之日 雷雨驟作 紫氣冲霄 雖深山窮谷 莫不驚悼 如失長城焉 上深加痛惜 亟命給需致賻 遣禮官祭於其廬 贊曰 惟公 豈不誠大丈夫哉 臨亂效忠 義也 知止勇退 智也 赤松之遊 一絲之風 洒落光明 特立宇宙 意者天以全節畀公 扶我九鼎歟 誠使處之廊廟 必且身佩安危 爲社稷臣 可謂文武全才 命世鴻儒 如有尙論者 槩見倡義之迹 只認爲將 則何足以知公哉 或言南冥先生於公 擇以贊之 又訓迪之 噫 同明相照 同氣相求 得公於先生之門 不亦宜乎 萬曆四十五年秋 侍講院輔德知製教裴大維 撰送史院 ; 배대유는 이후경과 함께 영산현 인물이다. 『영산군읍지』(靈山郡邑誌, 1899).

120) 홍우흠 번역, 『修正國譯 忘憂先生文集』, 신우, 2003, 320~321쪽.

동시에 사관에 보내 策簡에 쓰도록 하기 위해 광재우전을 입전하였다.<sup>121)</sup> 배대유는 조식의 再傳弟子로 광해군 때 폐모론을 주도하였으며, 1621년(광해군 13) 병조참의에 올랐으나 인조반정 이후 찬출되었다.<sup>122)</sup>

『포산지』에는 배대유의 망우당전 뒤에 협주로 광재우가 영창대군을 주살하려는데 반대하여 올린 상소가 실려 있다. 이 상소문도 앞부분이 찢어진 상태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1613년(광해군 5) 6월 26일에 올린 救永昌大君疏임을 알 수 있다.<sup>123)</sup> 광재우는 이해 4월 17일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으나, 5월 17일 다시 복직을 독촉하반자, 소를 올려 교체를 요청하면서 영창대군을 변호하였다. 이 글을 보고 광해군은 기뻐하지 않아 광재우의 사직을 허락하였다.<sup>124)</sup> 광재우는 이 상소로 인해 참소를 당하여 큰 화를 입게 되었으나 장령 배대유가 소를 올려 구제하였다.<sup>125)</sup> 『포산지』에서는 광재우전과 함께 광재우의 상소문을 실음으로써 비판 세력의 예봉을 꺾어 주었다. 광재우에게 贈職과 忠翼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은 1709년(숙종 35)의 일이다.<sup>126)</sup>

121) 홍우흠, 앞의 책, 300~308쪽.

122) 광해군일기(정초본) 10년(1618) 1월 4일(갑자) ; 參知裴大維, 請罷職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3월 18일(무신) ; 간원이 아뢰기를, “繕工正 裴大維는 적신의 괴수에게 빌붙어 臺閣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대군을 죽이고 대비를 폐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관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정축일(19일)에 가서야 따랐다. 『인조실록』 1년(1623) 8월 15일(계유).

123) 『망우집』 救永昌大君疏 癸丑六月二十六日(홍우흠, 앞의 책, 230~232쪽).

124) 소를 살펴보니 참으로 가당한 내용이다. 경에게 곤임(병사나 수사)을 맡긴 것은 長城과 같이 의지하고자 함이었으나 여러 번 사직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변방이 오래 동안 비어 있는지라 본직을 교체하여 경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노라. 홍우흠, 앞의 책, 232쪽.

125) 『망우집』 忘憂先生 年譜(홍우흠, 앞의 책, 91~92쪽).

126) 1709년 4월 12일 자헌대부병조판서 겸 의금부사를 추증하고, 12월 13일에 충의

## 5. 맺음말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포산지』는 조선 중기 현풍현 지역의 읍지이다. 이 읍지는 표지까지 합쳐 69장 137면의 필사본이며 서문이나 발문이 없다. 이 책은 모두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읍지들과는 달리 학규와 향약 및 遺事가 98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록들이 별면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명집』과 현풍면에 남아 있는 김세렴 인정비에는 김세렴이 『포산지』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포산지』에서는 관아와 향교를 수리한 내용의 마지막이 1633년이고, 광준 신도비가 1634년 5월에 건립되었으며, 풍영대 제명 석각은 1634년 5월 16일이라 나온다. 김세렴은 현풍현감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되어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 통신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포산지』는 삼사의 청직에서 좌천되어 현풍현감으로 와 있던 김세렴이 중심이 되어 1634년부터 시작하여 1635년(인조 13)에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편찬 과정에서는 풍영대에 함께 이름을 새겼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제영 뒤의 유사들은 원문을 많게는 2/7까지 줄이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세렴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정비(거사비)

---

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망우집』 망우선생연보 : 집의 李正臣이 상소하여 임진년에 倡義한 사람 광재우의 충절을 진달하고, 諡號에 준한 관직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특별히 윤허했다. 『숙종실록』 35년(1709) 4월 9일(경술) ; 그러나 2년 뒤 기사에는 ‘右尹 贈 判書 郭再祐에게는 忠翼의 諡號를 내려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숙종실록』 37년(1711) 6월 16일(갑술).

에서는 김세렴이 『포산지』를 편찬하였다고 새겨 놓은 것이다. 현존하는 책의 표지에 찍혀 있는 붉은 색 印記는 1741년(영조 17)부터 1745년까지 현풍현감을 하고 있던 박치문 소장본이었음을 보여준다.

북인 집안에서 성장한 김세렴은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여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년 뒤 반정 공신 이귀를 논핵했다가 현풍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가 부임하기 직전인 1631년(인조 9)에는 광해군 복위 모의 사건으로 현풍 인근 군현의 많은 인물들이 희생되었으며, 성주목은 박훈이 연루되어 처형됨에 따라 성산현으로 강등되었다. 1635년(인조 13) 봄에는 김세렴 자신도 이기안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김세렴과 현풍 사족들은 같은 북인계 남인으로써 장현광, 이준, 정경세와의 연결을 모색하였다. 김세렴은 현풍에 내려와 학규와 향약을 제정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으며, 이 지역의 인물들을 현양하는데도 노력하였다. 『포산지』에서 김세렴과 현풍 사족들은 지역의 현양할 인물과 지리 정보들을 東國儒宗 김굉필,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 退溪嫡傳 정구로 연결 짓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산지』 곳곳에는 현풍 사회를 주도해온 북인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현풍 지역 사족들은 배신이라는 인물을 현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는 스승인 조식이 죽자 조정의 명으로 남명 선생행록을 지어 올렸으며, 박성과 곽준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현풍현감 유덕수의 송덕비문을 짓기도 하였는데 유덕수는 1589년 기축옥사 때 희생된 인물이다. 김세렴은 1633년 현풍·고령 사족 200명과 함께 배신의 증적을 청하는 상소를 써 올리기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677년(숙종 3)

에는 유생 곽수하 등이 정구, 박성과 함께 도동서원에 배향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733년(영조 9)에 이르러서야 도동서원에 別祠를 세워 곽승화, 원개, 곽율과 함께 봉향되었다.

곽율 행장에 의하면, 곽율은 조식의 제자로 배신·김부륜·김우옹과 서로 학문과 덕을 닦았으며 박성·곽준과 중유하였다. 정구 신도비와 박성 행장에서는 정구와 박성이 정인홍과 관계를 단절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곽율, 박성, 곽준,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곽준은 황석산성의 영웅으로 국가로부터 포상 받은 인물이다. 곽준 신도비명에는 증중부인 곽승화가 김굉필과 더불어 김종직의 문하에서 중유한 사실은 나오나, 스승인 배신이나 조식에 대한 기록은 없다.

곽재우전은 한 면이 떨어져 나갔지만 배대유가 지은 것이다. 배대유는 조식의 재전 제자로 광해군 때 폐모론을 주도하였다. 곽재우전 뒤에 협주로 곽재우가 영창대군을 주살하려는데 반대하여 올린 상소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역모 사건이 빈번했던 인조 정권 아래서 비판 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요컨대 『포산지』는 북인계 남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김세렴과 현풍 지역의 사족들이 중앙 정계의 주요 남인 세력들과 연결하여 지역 인물을 현양하고, 이를 통해 역모에 희생되지 않기 위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문집 : 『景賢錄』(김굉필), 『溪巖日錄』(김령), 『沂洛編芳』(박상절), 『己卯錄補遺』(안 로), 『記言別集』(허목), 『洛川集』(배신), 『東溟集』(김세렴), 『忘憂集』(곽재우), 『慕亭集』(배대유), 『星湖全集』(이익), 『凝川日錄』(박정현), 『定庵逸稿』(곽월), 『淸陰集』(김상헌), 『草澗集』(권문해), 『癡齋日錄』(허명신), 『澤堂集』(이식), 『投巖集』(채몽연), 『海槎錄』(김세렴).
- 읍지 : 『苞山志』, 『輿地圖書』, 『玄風縣邑誌』(1786), 『慶尙道邑誌』(1832), 『玄風縣邑誌』(1841), 『玄風縣邑誌』(1865), 『嶺南邑誌』(1871), 『嶺南邑誌』(1895), 『玄風郡邑誌』(1899), 『靈山郡邑誌』(1899), 『威州志』(1587), 『永嘉誌』(1608), 『商山誌』(1617), 『宣城誌』(1619), 『湖山錄』(1619), 『鰲山志』(1673), 『京山志』(1677).
- 인터넷 자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지리지 정보시스템, 남명학고문헌시스템, 승정원일기, 유교넷,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한국족보자료시스템.
- 기타 : 포산과씨 청백리공 후 파계도, 『苞山郭氏族譜』(1743).
- 金子相 역, 『商山誌』, 상주문화원, 2003.
- 김순희, 「吳溟과 「威州志」」, 서지학연구 29, 2004, 475-498쪽.
- 김용흠,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역사학연구 27, 2006, 169-194쪽.
- 김우철 역주, 『추안 급 국안』 12, 14, 흐름, 2014.
- 김우철, 「인조 9년(1631) 鄭澗 모반 사건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39, 2010, 105-132쪽.
- 김인득 외 편, 『國譯 景賢錄(全)』,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2004.
- 김학수, 「寒岡(鄭述) 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51-119쪽.
- 김홍영 역, 『국역 투암선생문집』, 학민문화사, 2013.
- 달성군 정책사업단, 『달성의 금석문』, 달성군.

- 박병련, 「광해군 복립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연구논총 11, 2002, 229-259쪽.
- 배재홍, 「三陟府使 許穆과 『陟州誌』」, 조선사연구 9, 2000, 187-228쪽.
- 설석규 외, 『증보 경상도 선생인(상)』, 한국국학진흥원, 2005.
- 成炳禧 외 역, 『國譯 永嘉誌·宣城誌』, 안동문화원, 2001.
- 신병주, 「17세기 전반 복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992, 129-150쪽.
- 쌍계1리 마을지 편찬위원회, 『雙溪마을誌』, 2000.
- 양보경,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18-1, 1983, 51-71쪽.
- 양보경,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문화역사지리 4, 1992.
- 楊普景, 「조선 중기 私撰邑誌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향교자료집성( I )』,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 李光洙 역, 『琴軒先生實紀』, 학민문화사, 1995.
- 李文鍾, 「17世紀初 瑞山地方의 地理的 狀況」, 문화역사지리 4, 1992, 109-129쪽.
- 李相瞳 역, 『譯註 鰲山志』, 청도문화원, 2003.
- 이상필 역, 『국역 경산지』, 성주문화원, 2014.
-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24, 2015, 13-42쪽.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 장동우, 「『가례집람보주』에 대한 보고」, 『한강 정구의 경학과 예학』(미간행), 한강학연구원, 2015.
- 장재석 외 역, 『국역 계암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장재석 외 역, 『국역 초간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 정호훈, 「17세기 전반 경기남인의 세계관과 정치론」, 동방학지 111, 2001, 191-267쪽.
- 蔡洙穆, 『東溟先生の 遺集』, 현풍향교, 2000.
- 홍우흠 역, 『修正國譯 忘憂先生文集』, 신우, 2003.
- 홍제연, 「『湖山錄』에 나타난 조선전기 瑞山의 사회상」, 역사민속학 11, 2000, 205-229쪽.
- 황위주, 寒暄堂 金宏弼에 대한 評價과 追崇樣相, 퇴계학보 137, 2015, 149-190쪽.

Abstract

Hyeonpung Hyeon Mayor Kim Seryeom's Compiling *Posanji* in 1635

Lee, Jae-Doo

*Posanji*(古2758-1), which is kept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a record of Hyeonpung Hyun, in the mid-Joseon dynasty. This record comprises 69 sheets of paper with 137 pages of manuscript with 45 items. The red stamp on the cover of the book shows that its owner was Park Chimun, who was the mayor of the Hyeonpung Hyun from 1741 to 1745.

According to *Posanji*, Pungyeongdae Stone Monument was named on May 16, 1634. The historic records after the poetry recital section of the book shows that the poems were shortened from the original ones. In the Appreciation Monument of Kim Seryeom, which remained in Hyeonpung Myeon, was recorded that it was he who compiled *Posanji*.

From these records, it seems Kim Seryeom was indeed the main compiler of *Posanji*. He possessed such excellent writing skills that he was sent to Japan as a diplomat less than a year after he left his post as Hyeonpung Hyeon mayor. *Posanji* was compiled around 1635(the 13th Year of King Injo) but begun sometime in 1634.

We can see traces of the Northerners who were leading Hyeonpung society. The local community's effort to promote Bae Shin, Jo Sik's disciple, was not accepted. Bae Shin was a teacher of Park Seoung, Kwak Yul and Kwak Jun. Despite the fact that local figures in Hyeonpung in the past were deeply connected academically to Jo Sik, Kim Seryeom and certain Hyeonpung gentries connected local famous people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to Kim Goengpil, Lee Hwang and Jeong Gu.

Kwak Yul, Park Seong, Kwak Jun and Kwak Jaewoo raised volunteer arm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Kwak Jun was rewarded by the government as a hero of the Hwangseok Wall battle. A piece of the Kwak Jaewoo biography section in the *Posanji* was lost, but it was written by Bae Daeyu who was Jo Sik's disciple and led the Decrowning of the Queen Movement during the Prince Gwanghae period. The commentary at the back of the *Kwak Jaewoo biography* recorded that Kwak Jaewoo wrote the opposing appeal to put Prince Yeongchang to death. This was their plan to avoid the impetuously harsh charge from the critical forces under King Injo's rule when treason was prevalent.

In summary *Posanji* was the result of Kim Seryum and Hyeonpung gentry's struggle to survive who were pro-Northerner Southerners. They made a connection with the major Southerner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moted local scholars so that they would not become a scapegoat of treason.

#### Key Word

*Posanji*(『苞山志』), Hyeonpung Hyeon(玄風縣), Kim Seryeom(金世濂), Pro-Northerner Southerner(北人系 南人), Bae Shin(裴紳), Jeong Gu(鄭述), Kwak Jaewoo(郭再祐)

- 논문투고일 : 2016.1.15. 심사완료일 : 2016.2.11. 게재결정일 : 2016.2.12.